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9.1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 前총리, 이슬람 극단주의 생물테러 경고
 - 9.6 「토니 블레어」 前 영국총리는 9·11테러 20주기를 맞아 왕립합동 군사연구소(RUSI)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가 여전히 서방 세계의 최대 안보 위협이며 생물테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
 - * 同人是 9·11테러 당시 영국 총리로 이라크와 아프간에 대한 군사 개입을 지지
- 佛 법원, '15년 파리 연쇄테러* 재판 개시
 - 9.8 佛 법원은 프랑스 최악의 인명피해로 기록된 '파리 연쇄테러(사망 130명, 부상 수백명)'를 자행한 20명에 대해 재판을 개시, 원고 1,800여명·변호사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9개월간의 재판을 진행할 예정
 - * ISIS 조직원인 피고인들은 폭탄 조끼를 착용하고 콘서트홀 등 6곳에서 테러 자행

미주

- 美, 9·11 테러범 18개월 만에 재판 재개
 - 9.8 쿠바 관타나모 美 해군기지 법정에서 9·11 테러 설계 혐의자인 알카에다의 「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」 와 공모자 등 5명의 심리가 18개월 만에 재개되었으나 변호인단은 'CIA 고문에 의한 증거 채택 불가'를 지속 주장, 일각에선 심리절차 장기화를 우려
 - * '02~'03년 체포후 공판前 심리만 40여회 진행되다가 코로나19로 작년초 중단
- 美, 총기 난사 모의 10대 2명 체포
 - 9.12 경찰은 '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*'을 모방해 테러를 계획한 「코너 프루엣」 (13)과 「버드 필립」 (14)을 체포하였으며, 이들은 △콜럼바인 사건 연구, △학교 CCTV 표시 지도 소지, △다량의 무기 보유 △파이프 폭탄 제조법 학습 시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
 - * '99년 학생 2명이 고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교사 1명·학생 12명 사망

아 · 테평양

○ 알카에다 수장, 9·11 테러 20주년 성명 발표

- 사망설이 돌던 알카에다 수장 「아이만 알 자와히리*」가 9·11 20주년에 공개된 영상(약 60분)에 등장해 ‘아프간 미군 철수’ 등을 언급했으나 ‘탈레반의 아프간 점령’ 언급이 없어 촬영 시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

* 9·11 테러를 주도한 「빈 라덴」이 미군에 사살('11.5월)된 뒤 지위를 승계, '20.11월 파키스탄 언론이 同人의 호흡기 질환 사망설 보도

○ 인니, ‘제마 이슬라미야(JI)’ 핵심 지도자 체포

- 9.13 인도네시아 경찰은 '02년 발리 폭탄테러(200여명 사망) 등을 자행한 알카에다 연계조직 ‘제마 이슬라미야(JI)’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同단체 핵심 지도자 「아부 러스단」을 체포했다고 발표

* 同人은 발리 폭탄테러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'06년 출소 후 인니 전역에서 활동

○ 호주, 극우 극단주의자 총기 범죄 혐의 기소

- 9.13 호주 합동대테러팀*은 극우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남성(26)의 휴대전화에서 총기 설계도를 발견해 체포·기소했으며, 同人의 거실에는 나치 깃발이 걸려있었다고 발표

* 연방경찰 · 지방경찰 · 보안정보국(ASIO) · 범죄위원회 등으로 구성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무장괴한 공격으로 240명 탈옥

- 9.13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2일 야간에 폭발물과 총기로 무장한 괴한들이 중북부 지역의 교도소를 공격(보안요원 2명 사망, 2명 실종)해 수감 죄수 294명 중 240명이 탈옥했다고 발표

* '21.4월 죄수 1,844명이 탈옥한 사건 이후 올해 발생한 2번째 유사 사건

이란 군사 퍼레이드 무차별 총격테러

- '18.9.22 이란 남서부 아흐바즈市에서 이란-이라크 전쟁(1980년 발발) 종전 기념 행사의 일부로 진행된 군사 퍼레이드 중에 무차별 총격 테러가 발생, 군인 12명 등 29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부상
 - 테러범 4명은 이란 군복을 입고 이슬람 혁명수비대*와 민병대로 위장하여 퍼레이드가 시작된 09:00경 약 10분간 무차별 총격을 자행
 - * '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 창설, 정규군과 함께 이원조직으로 발전하였으며 12만 5천명의 육·해·공군·특수부대(Quds軍)·민병대(Basij)로 구성
 - 이란 보안군이 현장으로 출동, 테러범 중 3명을 사살하고, 1명을 체포(체포 과정에서 부상 당해 결국 사망)하며 사건을 진압
- 사건 직후, ISIS와 이란 내 아랍 민족주의 무장정파 ASMLA*가 서로 자신들이 공격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테러 주체에 대한 혼선 초래
 - * ASMLA(Arab Struggle Movement for the Liberation of Ahvaz, 아흐바즈 해방을 위한 아랍투쟁운동)
- 반면, 이란 최고지도자 「알리 하메네이」는 “이번 사건은 자국 주변의 親美 꼭두각시 국가들의 음모”라며 미국을 ‘테러 후원자’로 지칭

< 아흐바즈 해방을 위한 아랍투쟁운동(ASMLA) >

- (결성) 하빔 자바르, 하빔 아세와드 카비, 아마드 몰라 니시 등이 이란으로부터 후제스탄州를 분리독립해 아랍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토대로 '99년 결성
 - ※ 국제테러단체로 未분류, 이란 정부 지정 테러조직으로 300여명 규모
- (활동지역) 덴마크·네덜란드에 거점을 두고 이란 내 활동
- (활동수법) 이란, 석유시설 겨냥 폭탄테러, 軍·경찰 대상 무장공격
- (특 징) 시리아 무슬림 형제단 및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 등 汎아랍민족주의를 토대로 이란정부 대상 무력 공격 자행
- (주요테러) △'05.6월, 후제스탄州지사 겨냥 연쇄 폭탄테러(사망 8, 부상 75)
 △'06.1월, 아흐바즈市 은행 지점과 정부청사 폭탄테러(사망 8, 부상 46)
 △'18.9월 아흐바즈市 군사 퍼레이드 무차별 총격테러(사망 29, 부상 70)

